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짙은 땀, 아쉬운 여름, 풍성한 은혜

### 올해 각 부서 여름행사 마감... 충만한 영성의 시간 가져

"성경학교가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몰랐습니다"(초등부), "창세기·출애굽기를 통독했어요"(중등부). 이번 여름수련회에 참가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고백이다.

지난 17일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교회 각 부서에서는 강렬한 태양, 쏟아지는 비, 흘러내리던 땀과 갖가지 여름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한달에 걸친 올해 여름행사를 모두 마감했다.

금년도 여름행사는 가장 먼저 7월16일 당회원수련회가 시작되었고 같은날 교회당에서는 탁아부교사수련회도 열렸다.

이튿날인 17일부터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는 교회당 내에서 모두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중등부는 충북 영동에서, 고등부와 대학부는 각기 양평과 청평에 소재한 다른 교회의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올 여름 마지막으로 개최된 행사는 청년회 수련회. 청년회원들은 그동안 세미나 등으로 세심하게 준비해온 수련회를 강화도 동막리에서 개최했다.

특별히 수련회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던 장년부와 소망부도 교회당에서 특강 등 행사를 마련, 살진 영적 감동의 시간을 갖고 넘치는 은혜로 여름을 보냈다.



올여름도 우리는 각종 행사를 통해 살진 영적 감동의 시간을 갖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보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감사로 맞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자.

더욱이 금년 여름행사는 부서별 차원뿐 아니라 피택장로들의 산상기도회, 지원교회를 돌아보는 전도회특별모임 등 각종 모임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농촌전도단은 충남 울정리의 울정교회 찾아가는 여름성경학교와 축호전도를 비롯,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지에 폈다.

긴 여름 각종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참가자들은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짧은 여름을 아쉬워했다.

교회는 뜨거웠던 여름행사들을 마무리하



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교회 내적 성장의 초석이 되는 다락방 모임과 교구활동에 힘을 쏟기로 하였다.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쉬었던 다락방 모임은 9월부터 재개된다. 8월 중에도 쉬지 않고 모임을 가진 다락방도 있고 지난 주부터 이미 다시 시작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락방도 있지만 9월부터는 온 교우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한 주간은 각 교구별로 담담교역자와 함께 교구연합모임을 갖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새출발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 누가 일할까?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0학기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세미나 진행을 돕기위한 봉사자를 찾고 있다.

이번 목회자신학세미나는 9월 2일부터 10주간 매 주 월요일에 강남 YMCA대강당에서 개최되며 봉사자는 안내, 차량관리, 식사준비와 배식, 강의실 정리 등 세미나 진행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를 맡게 된다.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는 최종시장로(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감)나 김명현 목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 여전도회 전국대회 개최

#### 9월4일 100주년기념관서

전국여전도회 제 61회 총회 및 전국대회가 오는 9월 4일(수)부터 3일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주제는 '세계로 향한 선교여성'이며 이종윤 목사가 성경연구시간을 두차례 맡는다.

이 대회는 평신도사역에 기여할 프로그램을 마련과 전국 회원들과의 교제를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8월 학습·세례식** 21일(수) I·II부 예배시 8월 학습·세례식이 거행되었다.

## 창세기 강해



##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 1 ~ 4절)

이중윤 목사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내가 요셉이요”라고 하는 순간 요셉의 감정도 고조되었고 형들의 심장의 고동소리도 점차 커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가장 절정이라고 할만한 오늘의 사건에서 요셉과 예수님을 네가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1. 형들이 요셉을 알기 전 요셉은 형들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처음 대면했을 때 바로 알아보았고 유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밖의 모든 형제들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형들은 요셉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그를 요셉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오셨을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1:10).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시139:15).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존재나 일반적 지식으로 안 정도가 아니라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숨겨진 죄와 모든 소원과 갖가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셉과 그 형들과의 관계에서와 같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서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비밀을 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자기들의 죄를 폭로할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밝은 곳으로 끄집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숨기려 한 죄도 알고 계시고 나 외에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감추었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땅속에 묻었다고 생각한 죄도 아시아서 폭로

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용서를 구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또는 자신에게 죄를 숨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폭로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판단 아래서 폭로될 것입니다.

#### 2.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혼드시л 때 그들은 후회도 했고 가끔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20년이 넘는 과거에 있었던 요셉,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그는 더이상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45:1).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요셉의 사랑도 위대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더 위대했습니다. 요셉이 환경을 이용하여 형들을 회개시키고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큰 사랑 덕분에 회개하고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 3. 형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알기 전 요셉은 형들을 구원했습니다.

형들이 실제로 회개하고도 요셉의 손에 목숨이 달렸다면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 형들의 양심을 깨우시고 영적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질적 궁핍과 누명과 고독과 위기를 통해 그들은 회개하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단순히 무지한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했었습니다(42:28).

우리는 마지막날 심판장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 4.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도망하려 할 때 요셉은 형들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는 두려운 위치에 있지만 노한 상전이 아닌 사랑많은 형제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화난 음성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음성으로 형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의 표시로 형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작고 잔잔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이웃, 옆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부르듯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조용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안다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 ✧ 순례자 컬럼 ✧

##### “기독교 노동관”

인간은 누구나 노동을 하며 산다. 육체로 하든지 정신으로 하든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노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고 했다.

노동은 저주의 산물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인고로 우리는 노동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노동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은 있으나 귀천은 없으며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의 목적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데 있다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어렵지 않게 풀려질 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부여 받은 협력자로서 상호보충적 자세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학부수련회를 마치고

## 섬김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간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수련회였다. 진정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신 것과 나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한다.

안선영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친구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노대희

예전처럼 흥분되는 감정보다는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이 많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다. 내가 은연 중에 지은 죄들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책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정진원

그간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인간의 이해와 상상

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좁은 생각에 맞추려 애쓰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내 모습 이대로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그것만으로도 감격하며 사는

간절한 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것이다. 내 맘에 가득 넘쳐나던 사랑을 인해 감사드린다. 한장미



나날이 되어야겠다. 손영희

기도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음에 마음이 든든하다. 최혜진

잔잔함 속에서 기쁨과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수련회였다. 힘겨워하는 후배의 손을 잡고

그동안 주님을 따라온 자다. 주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닌 멀찍이서. 그래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보이는 곳에서 따라온 자다. 언제나 찢어진 무엇. 주님은 이번에 깊숙히 감춰져 있던 내 맘속의 헛된 것들을 찢어 주셨다. 얼굴에 주님 모습 가득한 주님 딸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노애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다. 한학기 남은 대학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난 자녀의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 나소정

■ 청년부수련회를 마치고

## 열린 마음으로 참여 말씀충만함을 만끽

시종일관 안정되고 푸근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청년부의 여름수련회도 역시 일년에 두 번 주어지는 수련회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깨끗게 하는 소중한 휴식이라는 점을 더할 나위없게 확인케 하는 또한번의 기회였다.

이번 청년부수련회의 특징을 몇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청년들이 모두 열린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답게 화합과 섬김의 분위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속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낮추는 청년부 회원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구체적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큰 하나님을 소유하고 세계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역사 속으로 전진하라”는 말씀 속에서 청년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취해야 할 행동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각을 벗어나 크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소유하며, 우리 주변을 역사 속에서 인식하여 세계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



도하며 역사 속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힘찬 군사가 될 것이다.

셋째로는 오랜기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수련회를 준비했던 것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몇달 전부터 우리는 여름수련회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차례의 기도회, 세미나, 말씀공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대감이 커져왔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미나를 네차례에 걸쳐 가진 것을 수련회 기간 중에 사도행전을 통독하는 시간과 연계시켰던 것은 수련회를 말씀으로 풍요롭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뜨겁게 찬양을 인도한 찬양팀의 활약이다. 열정적인 찬양 속에서 잃었던



찬양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했거나 새로이 맛보았다는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 넘쳤다. 찬양을 담당하던 형제자매들 역시 정성을 다해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 같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있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 열린 마음들이 점차 확산되기를 기도해본다.

이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안일함과 막연한 고민과 갈등을 떨치고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청년의 길을 적극적으로 힘차게 걸어가리라. 이해영

■ 한총련사태를 바라보며

# 발상의 전환

이만열(전도사, 청년부 지도)



올해도 어김없이 8·15를 맞아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이 열려 그것을 강행하려는 주최측과 저지하려는 당국 사이에 한바탕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진보적인 언론으로 인정되는 신문에서조차 사회면의 한귀퉁이 정도를 차지하는 의미밖에 없는 이 연례행사는 국민 대다수의 냉담한 반응과는 달리 주최측과 공권력 사이에는 문외한인 제 3자에게까지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우선은 실정법의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당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이 우리시대 전민족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명임을 이런 식으로라도 알리려고 노력하는 주최측의 끈질긴 정열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행사는 요 몇 년 사이에 판에 박힌 듯한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남과 북, 해외동포를 대표한다고 하는 분들이 해외 어느 곳에서 혹은 팩시밀리 등을 통해 이 행사를 계획합니다. 이 합의과정은 올해의 경우, 이들의 통일운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만한 이들에게조차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합의

과정의 단계에서 벌써 법의 제재를 받아 투옥이 시작됩니다. 8월이 다가오면 대표를 북에 파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며, 국민들은 또 전의를 감지케하는 이 연례행사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둔갑하게 느끼게 됩니다. 행사가 시작될 무렵이면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당국과 학생들이 앞세운 주최측 사

한총련이 보여준 통일의 방법은 법과 정부당국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폭력의 인상을 남긴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법과 정부의 권위는 최대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태도가 좀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도 이제는 통일사회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이 통일을 실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는 돌과 화염병이 등장하는 격렬한 시위와 거기에 대응하는 원천봉쇄작전이 전개됩니다. 시위와 봉쇄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학생이든 전경이든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행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총련에서는 8월 12일에 두 학생을 북한에 파견하고 '제 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북한의 학생 수백 명을 초청하겠다고 합니다. 남측 학생들은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백 여 명의 학

생들을 판문점으로 보내겠다고 한다지요. 한편 안기부는 북한에 파견된 그 두 학생을 '밀입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그들이 귀환하는 즉시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이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로부터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대변해준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의도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한총련의 주장에 대

그들 나름대로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총련이 보여준 통일운동의 방법은 법과 정부당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때로는 화염병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주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성해야할 점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폭력의 인상을 준다면 이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통일문제에 대한 소극성에도 불구하고 법과 정부의 권위는 최대한 인정되어야 하고 예민한 문제에 부딪혀서 정부를 비판해야할 경우에도 격려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원칙을 깨달아야 할 정도로 성숙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정부 당국도 제발 이제는 고식적인 원천봉쇄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침을 전환하자면 무엇보다도 통일운동을 정부가 '독점'해야 한다는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민간에 통일운동의 활동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젊은이들에게 통일운동의 장을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통일된 사회의 주인공은 기성세대가 아니고 지금 통일운동에 나서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통일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 몫이 아니겠습니까.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 8월의 새가족 \*

이인숙 정장완 강승철 정보경 강희정 서기영 정경옥 강승호  
정찬수 이근성 송문희 강민희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           |                        |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 『성서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 『성서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극동방송(HLKX 1188KHz)      | 『생명은 빛으로』 |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 『늘푸른 초상』  |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
| 아세아방송(HLAS 1566KHz)     | 『라디오 강단』  |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                         | 『새벽의 강단』  |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 학생들이 온전한 천국시민으로 자라나도록
2. 새가족의 신앙성숙을 위하여
3. 대학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4.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br>II부 오전 11시<br>III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br>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 교회위치

